

보도시점 2024. 9.12.(목) 17:00

명절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정책역량 집중

- 추석 성수품 수급·가격동향 현장점검 위해 주요 민생부처 장관 합동 현장방문
- 역대 최대규모 성수품 공급, 각종 할인지원,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연휴 시작 전 마지막까지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가용정책 총동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12일(목)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망원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장바구니 물가,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각 부처 장관들이 농·축·수산물, 전, 떡 등 명절 차례상 품목 물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이행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

* 20대 성수품: [농산물]배추, 무, 사과, 배,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임산물]밤, 대추, 잣 [수산물]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정부는 성수품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의 성수품 공급과 함께 온·오프라인 소매점 할인행사,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700억원 규모 할인지원, 저렴하고 실속있는 민생선물세트 공급 등을 추진 중이다.

【추석 성수품 물가 및 수급동향】

최상목 부총리는 “최근 성수품 가격은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사과, 배 등 과일류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기간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공급 확대 등 추가조치를 통해 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가격 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할인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낮아질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사과(홍로) 가격(10개, 원) : (8.5주)27,135 (9.1주)25,791 (9.9~11)**24,826**<전년 대비△16.5%>
한우 가격(등심·1등급·100g, 원) : (8.5주)8,554 (9.1주)8,716 (9.9~11)**8,764**<전년 대비 △3.6%>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께서 농축산물 생산에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동안 추석 성수품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폭염 등으로 작황이 부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배추·무 등 일부 품목들도 정부 가용물량 방출,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 2배 확대(배추 포기당 500→최대 1,000원), 전통시장·대형마트 할인지원(최대 40%) 등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명절 할인행사 예산(약 3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시장 수*를 전년 대비 약 3배 확대하였다”면서, “주요 수산물 성수품 가격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이후 점차 하락하여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으나, 명절 기간 가격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수산물의 비축물량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조기 등 성수품을 중심으로 최대 60%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참여시장 수 : (23) 45개→ (24) 114개

** 물량확대(톤) : (고등어)+600 (오징어)+1,000 (갈치)+100 / 기간 연장 : 종전~9.22일 → 연장~9.30일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한 농·축·수산물을 지니고 시장 내 환급부스에 찾아가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에도 직접 참여하였다.

*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의 30%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 (3.4~6.7만 원 미만 → 1만 원 환급 / 6.7만 원 이상 → 2만 원 환급, 농축산물/수산물 각각 적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망원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안내에 힘입어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의 매력을 다양한 연령층에 알리기 위해 노력한 망원시장 상인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최상목 부총리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모두 환급받을 경우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온누리상품권 추석 특별할인(지류형 5→10%, 카드형·모바일 10→15%)까지 함께할 경우 국민들의 명절 물가 부담이 한 층 더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에 명절 직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주문하고,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할인율 확대 등의 혜택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부정사용 근절 노력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구매한 물품들은 지역사회에서 홀몸 어르신 등에 희망나눔 활동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였음

담당 부서	민생안정지원단	책임자	팀 장	강창기 (044-215-2861)
		담당자	사무관	신채용 (shinchy@korea.kr)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	책임자	팀 장	박상우 (044-215-2931)
		담당자	사무관	신승헌 (happyhoney@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하경희 (044-201-2271)
		담당자	사무관	장성준 (jsjun@korea.kr)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sjcrystal@korea.kr)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900)	
	담당자	사무관	유주현 (wannabe9@korea.kr)	